

<인터뷰>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종합)

[연합뉴스 2008-01-08 20:04]

"사르코지.낙당선인 개혁추진 등 닮은 점 많아"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사르코지 대통령은 박력 있는 개혁 추진 등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개혁'을 모토로 한 양국의 정책추진 과정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주관으로 9~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제7차 한불포럼 참석차 방한한 티에리 드 몽브리알(64)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은 8일 오후 호텔 커피숍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의 정부개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드 몽브리알 소장은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온 사르코지 정부 등 외국의 개혁과정을 그대로 좇는 것보다는 시라크 및 미테랑 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와 실패를 면밀히 분석,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드 몽브리알 소장은 인터뷰에 앞서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가진 강연회에서도 공무원 감축과 관련, "사르코지 정부는 공무원 3명이 퇴직하면 두 명만 뽑는 등 최종적으로 3분의 2까지 줄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르코지 대통령이 10여년간 휴가도 잊은 채 일에 푹 빠져 살아온 점이나 개혁추진 방식 등에서 이 당선인과 닮은 점이 많다"면서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나이 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79년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제문제 관련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외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했으며, 프랑스 주요 일간지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드 몽브리알 소장과의 일문일답.

-- 미테랑 이후 사르코지 현 대통령 정부의 개혁정책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미테랑과 시라크, 또 현재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과정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인수위가 프랑스 역대 정권의 개혁정책의 성패를 분석해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테랑은 1981년 당선된 뒤 잘못된 개혁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홍역을 겪기도 했다. 몇 달 후 스페인 총리가 된 곤살레스는 미테랑 정권의 개혁정책을 분석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미테랑 이후 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실패 사례는.

▲미테랑 정부 출범시 프랑스의 형편은 현재 프랑스 상황과 정반대였다. 그런데도 공공지출을 늘려 공공부문의 적자가 크게 늘었다. 또 환율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날로 상승, 3년 뒤인 1984년에 반대방향으로 대대적인 시술을 해야 했다. 특히 통화정책이 붕괴 위기에 직면, 재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차기 정부가 미테랑과 사르코지 정권의 개혁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방법론 중 긍정적인 점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사르코지 개혁'이 단계적이 아닌 '동시다발적'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기초가 한국의 차기 정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사르코지는 일련의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프랑스 사회가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동시다발적인 개혁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또는 '한국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고 따져보면서 개혁정책을 치밀한 일정하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사르코지 정부는 노동계 등의 적잖은 저항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정치개혁을 추진해왔다. '사르코지 개혁'의 원동력은.

▲우선 미테랑과 시라크 전 대통령이 26년간 통치해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수 년 전부터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개혁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돼 온 점이 개혁을 뒷받침해 주는 원동력 중의 하나다.

아울러 시라크 전 대통령은 자기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물로 비쳤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험은 다소 부족해도 에너지가 넘치고, 우호적인 이미지와 적절한 언어구사 등으로 국민을 설득할 줄 아는 인물이다. 이것이 각종 난관 속에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다.

-- 강연에서 "사르코지가 나폴레옹 이후 가장 박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는데.

▲프랑스 정부는 3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 비용 감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하루하루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한.불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양국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경제교류도 날로 발전하고 있고, 문화 방면 역시 더 없이 좋은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특별한 현안이 없는 등 양국 관계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구름 한 점 없다"고 했는데,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을 겪어왔다.

▲이는 물론 양국관계에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관계연구소장으로서 상세히 논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duckhwa@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